

제44호 2022년 2월



2022.02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

동 창 회 보



“희 망” 박수경(체육교육, 97)



박수경 체육교육, 97 "희 망"

(사)한국칠보공예협회 이사장
(주)금하칠보 대표이사
공예디자인 연구소 대표
금하칠보 반초갤러리 관장

편집위원

회 장 양수화 (음악교육, 74)
부회장 차령아 (교육행정, 96) · 손옥임 (교육행정, 96)
정재용 (화학교육, 94) · 이순원 (체육교육, 86)
감 사 고정숙 (체육교육, 83) · 김 정 (미술교육, 00)
총 무 유경희 (사서교육, 00) · 이복경 (역사교육, 86)
재 정 서희경 (사서교육, 74) · 이영숙 (체육교육, 83)
문 화 신경숙 (음악교육, 98) · 박수경 (체육교육, 97)

인 쇄 : 2022. 2 발행 : 2022. 2 발행인 : 양수화 편집인 : 동창회 임원

발행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118-9 Fax. 02-3277-2841

<http://ged ewha.ac.kr>

동창회장 인사말씀 4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교육대학원장 인사말씀 5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동창회소식 및 회원근황 6

모교소식 7

동창수필 14

‘웃음 신비의 힘으로 코로나를 날려 보내자!’ - 차령아

동창수필 16

‘아버지’ - 신경숙

동창회 임원 18

후원이사 19



동창회장 인사말씀



사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운을 품고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대두되어 팬데믹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지만,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다는 시점에서 궁극적으로 좀 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대응으로 건강한 새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본 교육대학원 설립 55년째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22년, 55년 나란히 놓인 올해의 숫자처럼 우리도 일심동체가 되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희망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래를 함께 품어갑시다. 우리 이화의 충분한 저력과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 동문회도 동문들 간의 사랑과 모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믿음과 희망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소망과 계획한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양수화

2022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2021년에도 계속되어, 우리 모두 쉽지 않은 도전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동문 여러분 개인, 가정 및 일터가 모두 무탈하셨기를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은 1967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대학원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교육대학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동문들의 활발한 활동과 모교를 위한 헌신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에게는 동문들의 섬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교를 향한 동문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대학원 동창회를 이끌어오신 회장님과 임원들의 보이지 않은 수고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동문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도 우리 교육대학원은 1000여 명의 재학생들이 교육현장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고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9개 전공의 교수님들과 교육대학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대학원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교육현장의 변혁을 주도하면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동문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합니다. 동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28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박은혜

동창회 소식 및 회원근황

※ 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동창회 모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고 정 숙 (체육교육, 83)

전, 당산서중 교무부장
현, 개웅중학교 교감

- 2021년 한국청소년연맹훈장 수상
- 학교 교화가 채송화로 직접 심어서 2년 만에 성공적으로 꽃을 피웠다. 꽃밭 이름은 "아빠하고 나하고"



박 수 경 (체육교육, 97)

현, (사)한국칠보공예협회 이사장, (주)금하칠보 대표이사, 공예디자인 연구소 대표,
금하칠보 반초갤러리 관장

- 10월 19~21일 세계한상대회 참가 (롯데호텔월드)
- 10월 20~26일 사단법인 한국칠보공예협회 전시회 (인사동, 경인미술관)
- 10월 20일 남부교육청 교육감 칠보체험 (반초갤러리)
- 10월 21일 덕소초등학교 교사 칠보체험
- 11월 19~21일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코엑스)
- 11월 26일 백산초등학교 교사 칠보체험 (반초갤러리)
- 12월 10일 한울중학교 교사 감성체험_차와 칠보 (반초갤러리)
- 12월 20~21일 원광대학교 칠보 특강



신 경 숙 (음악교육, 98)

전, 현대중공업 영업기획팀 차장, 한국기타협회 부회장
현, 아주대학교평생교육원 · 문화센터 등 기타 강사

- 6월 26일 제2회 인천국제기타페스티벌 자문위원 및 콩쿨 심사위원
- 12월 15일 지도하고 있는 한남클래식 기타합주단이 용산구청으로부터 표창장 받음



차 령 아 (교육행정, 96)

현, 웃음치료 전문가, 구연동화가회 운영위원, BBC가족 이사

- 색동 구연동화가회 운영위원 모임, BBC가족 이사모임, 지역사회 경로당 순회 방문, 교회 등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하고서 웃음 치료와 울동 보급 지도.
- 반도유보라 팰리스 경로당 회장으로 봉사 활동.



양 수 화 (음악교육, 74)

전, 평택대학교 부총장
현,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이사장겸 단장

- 2021년 창단 30주년기념으로 오페라 베르디 작곡 <아이다> 5월7(금)~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3일 동안 공연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 2021년 12월 7(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시상식에서 오페라 <아이다>는 올해 가장 뛰어난 공연 작품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였다.

01 2021학년도 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1학년도 전기/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021.2.4.(목)/2021.8.5.(목)에 온라인 영상으로 시행되었다. 2020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김수지 교육대학원 부원장의 사회와 박은혜 교육대학원장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학사안내, 수강신청, 전공안내 및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였다. 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257명, 후기 신입생 138명이 참석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재학생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02 2020학년도 전, 후기 학위수여식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2021년 2월)은 개최하지 못하였다. 2020학년도 전기 본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수여자는 총 256명이며, 이 중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총 142명이었다. 학위수여 대표자로 유아교육전공의 장영은 학생이 선정되었고, 생물교육전공 진정연 외 4명의 학생이 발표한 석사 학위 청구논문이 우수한 연구와 탁월한 연구 성과로 인정받아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2021년 8월)은 2021.8.27.(금)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다. 전기 학위수여식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2020학년도 후기 본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수여자는 총 254명이며, 이 중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총 143명이었다. 학위수여 대표자로 국어교육전공의 정다운 학생이 선정되었고, 국어교육 김솔지 외 5명의 학생이 발표한 석사 학위 청구논문이 우수한 연구와 탁월한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아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다.

03 시가반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 연속 선정

본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은 ‘2021년 창의교육 거점센터’의 주관기관으로 연속 선정되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미래 융·복합 시대를 이끌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으로, 창의교육 거점센터는 창의교육 연구 및 교원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미래 창의교육 및 배움이 가능한 실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교는 2021년 3년간의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사업 주관기관에 재선정되어 국내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으로 역량을 빛내고 있다. 창의교육 거점센터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간 지원·운영되며, 매년 1.6억 원씩 3년간 총 4.8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본교는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비롯해 본교의 시 융합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기반의 우수성, 전국 단위 연구·지원 센터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가반 창의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04 2021학년도 공립 교사임용시험 이화인 31명 합격

2021학년도 공립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결과 본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졸업생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본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1차 교육학 및 전공 시험과,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이화는 지난 2019학년도 270명, 2020학년도 300명에 이어 올해 31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유·초·중등 및 특수 교육 분야와 주요 교과교육 전공을 모두 갖춘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서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 미술교육 수석(정현수,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19년졸)과 전북지역 중국어교육 수석(하상연,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 10년졸)을 교육대학원생이 차지하며 그 위상을 드높였다.

05 2021학년도 후기, 2022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일정

• 2021학년도 후기

구분	일시
입학설명회	2021.4.13.(화) 온라인 진행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2021.4.26.(월) ~ 5.3.(월)
입학원서(출력본) 및 제출서류 등기 우송	2021.4.26.(월) ~ 5.4.(화)
면접 전형일정 및 전형장소 공지	2021.5.25.(화) 15:00
전공별 면접전형	2021.5.29.(토)
합격자 발표	2021.6.11.(금)

• 2021학년도 전기

구분	일시
입학설명회	2021.10.12.(화) 온라인 진행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2021.10.18.(월) ~ 10.25.(월)
입학원서(출력본) 및 제출서류 등기 우송	2021.10.18.(월) ~ 10.26.(화)
면접 전형일정 및 전형장소 공지	2021.11.16.(화) 15:00
전공별 면접전형	2021.11.20.(토)
합격자 발표	2021.12.3.(금)

06 전공별 소식

1) 국어교육 전공

▶ 〈독서교육 교사〉 특강 (2021.10.25.)

국어교육전공은 2021년 10월 25일(월) '독서교육연구'라는 주제로 전공특강을 개최하였다. 광남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이은진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한 특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 및 실제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소개되었다. 창의력과 사고력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독서교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여 본 특강에서는 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의 구성 능력과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방안 예시를 공유함으로써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 논문중간발표회 (2021.10.29.)

2021년 10월 29일(금)에 국어교육전공은 논문중간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중간발표회는 ZOOM을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국어교육과 서혁 교수, 권순희 교수, 김정우 교수, 김지혜 교수, 정소연 교수와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과정생 6명이 참석하였다. 5학기 재학생 및 수료생들의 국어교육 분야 연구 발표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교수들의 피드백 및 연구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2) 역사교육 전공

▶ 교육실습 사후 평가회(2021.06.15.)

2021년 6월 15일(화)에는 역사교육전공의 교육실습 사후 평가회가 열렸다. 이번 교육실습 사후 평가회는 ZOOM을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역사교육과 박민수 교수와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과정생 중 2021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생 4명이 참석하였다. 본 평가를 통해 교육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간단한 소감과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코로나 시대의 조선시대사 가르치기> 특강 (2021.06.30.)

역사교육전공에서는 2021년 6월 30일(수)에 '코로나 시대의 조선시대사 가르치기'라는 주제로 전공특강을 개최하였다.

반포중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재직 중인 김나영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한 특강에서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상황에 놓인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일상, 교사들의 어려움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특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육 현장의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평가 방식과 학생들의 학업 효율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업 방식의 변화가 촉구되는 상황에서 역사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능력과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준비 방안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역사교육 이론과 현장의 이중주-이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여정> 특강 (2021.12.09.)



2021년 12월 9일(목)에 역사교육전공에서는 '역사교육 이론과 현장의 이중주-이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전공특강을 개최하였다. 본 특강은 정현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재직 중인 구나연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였다. 본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은 구나연 선생님의 임용 수험 기간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교사가 된 이후 확고한 교직관을 형성하기까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험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교사가 된 이후 느끼게 된 역사 이론과 교육 현장 사이의 괴리가 소개되면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고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한 오늘날의 청소년의 역사 과목 성취도를 함양하기 위해 수업 방식 및 평가법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음악교육 전공

▶ 재학생 간담회 (2021.3.26.)

2021년 3월 26일(금)에 음악교육전공 재학생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재학생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ZOOM을 통한 화상 회의로 시행되었다. 음악교육전공의 정주연 교수, 신지혜 교수 그리고 75명의 음악교육전공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전공 교원 및 21학년도 전체 전공 대표 및 임원을 간단히 소개하는 장이 이루어졌고 전공 주최 재학생 설문 조사를 통해 취합된 의견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블렌디드 러닝> 특강 (2021.5.28.)

음악교육 전공은 2021년 5월 28일(금)에 "블렌디드 러닝"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본 특강은 이현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 중인 강익진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특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에 인하여 변화된 학교 수업 현장에서 음악 교사로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강익진 선생님의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하여 관련 경험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던 강익진 선생님의 '거꾸로 학습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자리였다.

▶ **임용고사 특강 (2021.6.15.)**

음악교육 전공에서는 2021년 6월 15일(화)에 “2021 중등임용 합격자 특강”을 개최하였다. 본 특강은 본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졸업생이자 2021년 중등 임용고시에 합격한 윤나라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였다. 본 특강에서는 임용고시와 관련하여 실제 윤나라 선생님의 경험담을 주제로 주요 논의가 이루어졌고 효과적인 임용고시 공부법에 대한 전략적 제시를 비롯하여 수험 생활에 있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1년 제1회 좋은음악수업 컨테스트> 개최 (2021.09.17.)**



2021년 제1회 좋은음악수업 컨테스트가 지난 9월 17일에 개최되었다. 세 팀의 경연자들이 방학 동안 현장교사 멘토링을 통해 수업의 계획과 실연에 대한 많은 발전을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교육전공 전임교수님 두 분과 전직 현장교사들께서 심사를 해주셨고, 각 팀에게 자세한 심사평을 전달하였다. 모든 팀이 좋은 시연을 보여준 가운데, 배우리, 이은진, 한서희, 강가연 팀이 1등으로 선정되어 10월 13일 오전에 시상을 하였다. 신지혜 교수님이 번역자로 참가한 책을 기증해 주셔서 상품으로 전달하였다. 처음 개최된 좋은 음악수업 컨테스트는 내년에도 개최 될 계획이다.

▶ **유네스코 아태교육위원회 대학 세계시민교육 강좌 지원 사업 선정**

음악교육전공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위원회의 대학 세계시민교육 강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2학년도 제1학기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음악교육” 강좌가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국내 대학(원)생들의 세계시민교육 이해를 제고하고 의식 함양과 세계시민교육 학술연구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음악교육전공은 본 강좌를 신설함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세계화 의식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는 바이다.

▶ **겨울방학 특강 (2021.12.28., 2021.12.29., 2022.01.12.)**

음악교육전공은 겨울방학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12월 28일 지한비 선생님께서 ‘게더타운을 활용한 음악수업 사례’를 주제로, 홍성하 선생님께서 ‘창의적 사고기법을 활용해서 생활화 민요 배우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12월 29일에는 이모션웨이브 매니저인 조승현 강사님께서 ‘테크놀로지 활용 음악교육’을 주제로, 2022년 1월 12일에는 한정민 선생님께서 ‘임바디먼트를 활용한 음악 수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강들을 통해 음악수업에서 메타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4) 유아교육 전공

▶ **<파워포인트로 교재교구 만들기> 특강 (2021.11.17.)**



유아교육과정 수업 내 특강으로 ‘파워포인트로 교재교구 만들기’ 주제를 가지고 ZOOM을 통해 진행하였다. 11월 17일(수)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최혜윤 강사(명지대학교)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교재교구 만들기를 강의하였다. 학생에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교재교구 만들기를 강의하였다. 학생에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 특강 (2021.11.29.)**

유아컴퓨터교육 수업 내 특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를 가지고 ZOOM을 통해 진행하였다. 11월 29일(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최장욱 강사(키즈노트 대표)가 교육대학원 유아컴퓨터교



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키즈노트 회사의 이야기와 현대 사회의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수강생들은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교육을 계획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국·공립 유치원교사 임용 시험 대비> 특강 (2021.12.1.)

국·공립 유치원교사 임용 제2차 시험 대비 특강을 교육관 B동 254호에서 대면으로 개최하였으며, 동시에 ZOOM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였다. 12월 1일(수)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최정아 강사(서울양재 유치원 원감)가 임용 제1차 시험 수험생들과 임용 시험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수업시연 및 면접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 및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상담심리 전공

▶ 신입생 환영회(2021.03.19., 2021.09.24.)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였다. 환영회에는 전공주임 교수님인 남지은 교수님과 더불어 교육학과 오인수 교수님이

참석해주셨고,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환영회에서는 먼저 교수님과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학원 생활에 대한 교수님의 격려 및 조언을 들었다. 상담심리 전공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1급과 2급 준비 과정이 다르기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논문작성계획 발표회 (2021.06.11.,2021.12.23.)



상담심리전공은 4학기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작성계획 발표회를 진행한다. 금년도부터는 학위 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이 가능하여 논문작성계획

발표회에는 연구에 많은 관심이 있는 재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학기 논문작성계획 발표회는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1명의 재학생이 본인의 논문 주제와 논문작성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전공주임 남지은 교수를 포함한 세 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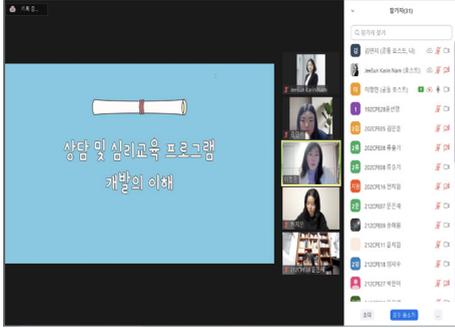
▶ <사이버 세상에 사는 아이들: 사이버 폭력 이해하기> 특강 (2021.06.15.)

상담심리전공에서는 재학생들의 현장 연구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 학기 전공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한국교원대학교 정여주 교수의 <사이버 세상에 사는 아이들: 사이버 폭력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공주임 남지은 교수와 34명의 재학생이 함께 참석하여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상담적 접근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 **상담사례 토의모임 (2021.07.19)**

사례 발표와 이에 대한 슈퍼비전 및 토의가 포함된 모임은 상담심리사 1급/2급과 전문상담사 1급/2급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이기에 매 학기 2번씩 모임이 열리고 있다. 상담심리학회, 상담학회의 온라인 공개사례 발표회 규정에 맞춰 상담사례 토의모임을 준비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상담사례 토의모임은 우리 전공이 단독 주최하였으며, 전공주임 남지은 교수와 재학생 38명이 참석하였고, 주 슈퍼바이저 조수연(호시담심리상담센터), 부 슈퍼바이저 이소은(호시담심리상담센터)이 함께 하였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특강 (2021.12.27)**



상담심리전공에서는 재학생들의 현장 연구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 학기 전공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한남대학교 이정민 교수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 공주임 남지은 교수와 29명의 재학생이 함께 참석하여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특히 심화단계에서는 앞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해 보고, 자신이 구상한 기획에 대한 약식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 **〈한국어 교사의 진로〉 특강 (2022.1.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의 진로: 박사과정 진학과 국내 기관 취업' 특강이 비대면 실시간(ZOOM 활용)으로 개최되었다. 교육대학원 졸업생 중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국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3인을 초청하여 진학 경험과 취업 사례를 소개하고 후배들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당부하는 시간이었다. 강사로 초청된 졸업생은 박서윤(2017년 8월 졸업, 한양대 국제교육원 교육전담교수), 박미영(2018년

2월 졸업, 가천대 자유전공학부 강사), 강수진(2019년 8월 졸업, 서울대 언어교육원 강사)이다. 이 특강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재학생 20여 명이 참석하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국외 한국어 교사 파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학생들은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는데 2021년에도 많은 졸업생들이 국외 기관으로 파견되고, 귀국하였다. 이준언(2014년 2월 졸업)은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으로 리투아니아 빌뉴스 세종학당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박지은(2019년 2월 졸업)도 세종학당 파견 교원으로 선발되어 출국을 준비 중이다. 박혜진(2017년 8월 졸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로 선발되어 베트남 동아대학교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되었다.

7) 미술치료교육 전공

▶ **국제교류 특강 (2021.07.16., 2021.08.20.)**

미술치료교육전공은 미국 Long Island University의 이승연 교수, Thomas Jefferson University의 모윤서 교수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치료교육 전공생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미술치료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제교류 특강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이승연 교수의 'Teletherapy & Art Therapy : Benefits and ethical issues'와 모윤서 교수의 '어린시절 트라우마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건강, 장내 미생물 및 염증'을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공 특강에는 미술치료교육 전공 교수진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약 110여명이 참석하였다.

▶ 미국미술치료 학회지 연구물 출판

미국미술치료 학회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의 Volume 38(2)권에 미술치료교육전공 박소정 교수와 전공졸업생 3명이 공동으로 게재한 <Traditional Korean Art Materials as Therapeutic Media: Multicultural Expansion Through Materials in Art Therapy> 학술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매 볼륨마다 가장 뛰어나거나 추천할만한 대표 아티클을 선정해 무료로 공개하는데 본 연구물이 선정되었다.

▶ 융합미술치료학회 제 1회 국제 학술대회 (2021.12.10.~ 2021.12.11.)



미술치료교육학과 전공생들과 교수진은 융합미술치료학회에서 주최한 '분열과 갈등, 팬데믹의 시대: 사회통합의 매개로서 미술치료의 역할'을 주제로한 제 1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 미술치료 대학원의 부교수이자 미국미술치료학회 편집장인 Jordan S. Potash 교수와, 미국 Portland Institute for Loss and Transition의 임상교수인 Sarah Vollmann, 그리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의 강연 및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미술치료학 전공 박사과정생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분열과 갈등, 팬데믹의 시대 사회통합의 매개로서 미술치료의 역할

The age of divisions, conflicts, and a global pandemic:
The role of art therapy
as a mediator for social integration

2021 융합미술치료학회 제 1회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21.12.10~11 (2일간) (2021년 12월 10일~11일) (2021년 12월 10일~11일) (2021년 12월 10일~11일)
- 장소: 서울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
- 문의: sojungpark@arttherapy.com

시간	2021. 12. 10. 금	2021. 12. 11. 토
09:30-10:30	시선 공유 및 참가자 Zoom 입장	
09:30-11:30	개회식	개회식
11:30-12:00	강연	강연
12:00-12:30	휴식	휴식
12:30-13:00	강연	강연
13:00-13:30	강연	강연
13:30-14:00	강연	강연
14:00-14:30	강연	강연

주최: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The age of divisions, conflicts, and a global pandemic The role of art therapy as a mediator for social integration

2021 IATA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 Important Dates
December 10(Fri) - 11(Sat), 2021
- Zoom/Online meeting: Republic of Korea
- Zoom meeting address to be announced at a later date
- E-mail inquiry: imsguest@arttherapy.com

- Pre-registration
November 22(Mon) - December 4(Sat), 2021
- Participation application: <http://imguest@arttherapy.org>

- Keynote lecture
- 2021.12.10.(Fri) 9:00-11:30
Jordan S. Potash
Ph.D., LPC, LCAT
Associate Professor, Art Therapy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ssociate Executive Director, Institute of Education and Therapy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itizen Artists and Art Therapists: Social Action and Social Justice»
- Lecture
- 2021.12.11.(Sat) 9:00-11:30
Sarah Vollmann
Ph.D., LPC, LCAT
«Art Therapy and the Trans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llective Grief and Trauma: Giving Voice to Subsequent Generations»
- 2021.12.11.(Sat) 13:00-15:00
Hackjin Kim
Ph.D., MEd., School of Psychology
«Self-compassion and abolition of empathy»

- Workshop
2021.12.10.(Fri) 13:00-15:00
① Gov-Yoo, ② Re-connected, ③ Pandemic Color

주최: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웃음 신비의 힘으로 코로나를 날려 보내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평상시 같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새해의 결심도 계획하고 헬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때이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요. 백신의 보급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지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인간의 삶이 황폐하고 경제적으로도 침체해 있어 허덕이는 사람, 생계유지가 어려워 못 살겠다는 사람 등등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해가 밝았어도 연초부터 오늘은 힘겹고 내일은 불투명하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금년 말쯤에 가서야 팬더믹이 엔더믹(계절독감)으로 자리잡게 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관측이 있다.



차령아 (교육행정, 96)
현) 웃음치료 전문가, 동화구연가
회운영위원, BBC가족 이사

요즘 우리 사회는 웃을 일이 별로 없다. 코로나와 정치 경제 위기 속에 직면하고 있는 이 때에 위정자들은 국가발전과 사회의 안정을 위한 노력보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서로 모함하고 다투고 혈투는 일이 빈번한 현실이다. 오늘날의 어둡고 무서운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 웃음의 신비한 힘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도 웃음의 힘으로 날려 보내어 안심하고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

웃음은 신비한 힘이 있다. 일본 작가 노사카 레이커는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고 했고, 오쇼 라즈니쉬는 “어떤 핵무기 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웃음의 신비한 힘을 연구하고 그것을 치료와 건강과 경영에 도입하는 열풍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웃음의 효능은 너무 다양하다. 이 웃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200만원 어치의 엔돌핀이 생성되어 질병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준다고 한다. 현재 병원, 요양원, 양로원 등에서 웃음치료는 진가를 발휘한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20초 동안 웃는 것은 3분 동안 격렬하게 노 젓는 것과 운동량이 비슷하다”고 말하였다.

배꼽 잡고 웃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왜 그럴까? 크게 소리 내어 웃을 경우 근육, 신경, 심장, 뇌, 소화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한번 크게 웃으면 우리 몸의 650개의 근육 중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80개의 얼굴 근육 중 15개가 움직인다.

이는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한다. 따라서 소리 내어 웃는 것은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다. 웃음은 내장을 맞사지 하는 내부 맞사지이다. 이렇게 되면 소화액 분비증가와 장운동의 촉진 등으로 몸이 편안해진다.

결국 웃음은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웃음은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웃으면 33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웃음은 진통제라고 불리는 엔돌핀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현상도 발견했으며,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억지웃음도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90% 효과가 있다고 하니 웃음이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웃어 유익한 엔돌핀과 엔케팔린의 쾌감호르몬이 생성되도록 하자.

1964년 8월 미국의 노만 커전스 박사가 ‘강직성 척수염’(질병완치가 500명 중 한 사람 정도가 치유 가능한 연결조직의 질환)이라는 희귀한 관절염에 걸려 의사로부터 회복 불능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병은 관절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겨 손가락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난치병으로 로버트처럼 거동했다고 한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죽음의 문턱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의지로 피나는 노력 끝에 웃음의 신비한 효력을 힘입어 완치의 행운을 체험한 주인공이 되어 테니스와 골프와 승마를 즐기었고, 손을 떨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를 수 있는 등 새 삶을 얻어 25년을 더 건강하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저서로는 [질병의 해부], [희망의 생물학] 등 뉴욕 타임스에 베스트 셀러에 오르고 말년 12년 동안 캘리포니아 의과 대학교수로 강의했다고 한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웃음의 신비한 힘의 능력으로 깨뜨려 날려 보내 건강을 지키자! 신비의 웃음앞에 접근도 못하고 달아나게 배꼽이 춤을 추게끔 크게 웃어보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 감사! 볼 수 있어 감사! 들을 수 있어 감사! 봉사할 수 있어 감사! 두 손이 있어 만들 수 있어 감사! 먹을 수 있어 감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데도 망각하고 살았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삽시다.

오늘도 코로나와 빠른 속도로 번지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도 박살 내도록 박장대소로 능력 있는 신비의 웃음을 힘차게 날려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호호호! 헤헤헤! 히히히! *^^*

아버지

오늘 아버지와 종합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다. 음식을 삼키는데 문제가 있어서 위루관(뱃줄)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빠진 것이다. 5개월여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감격적인 귀환을 한 것이 어제였는데 퇴원 하루만에 또 응급실 신세를 졌다. 갈때는 119를 불러서, 그리고 올 때는 사실 구급차를 타고 귀가를 했다. 아버지는 와상환자이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아버지는 2019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다. 그때만 해도 왼손이 조금 떨렸을 뿐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운동과 산책을 꾸준히 하시며 몸 관리를 잘 하셨다.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것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80대 중반의 연로하신 나이에 발병을 하였으니 잘 관리하면 천수를 누리고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급격히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방광 기능, 자율신경 기능 등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검진을 한 결과 파킨슨 병보다 훨씬 더 진행이 빠른 다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발병 후 2년이 되던 작년 여름에는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하는 것도 힘들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고열과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날부터 아버지와 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다. 호흡곤란, 비루관(콧줄), 기관삽관.. 다시 일반병실로, 또다시 중환자실로, 다시 기관삽관, 기관절개, 그리고 뱃줄(위루관)수술을 했고, 그 사이에 병원을 세 번 옮기고 재활병원을 거쳐 집으로 어제 퇴원을 한 것이었다. 처음 응급실에 가던 날은 가기 전에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산책을 다녀오셨었는데, 이제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중환자가 되어서 5개월 만에 집에 돌아오신 것이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였다. 어머니에게도 나에게도 늘 무뎠고 자상한 면이라고는 없으셨다. 내가 7살이던 어느 날 내가 아버지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내게 야단을 치셨고 그 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게 되었다.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장난치다가 갑자기 존댓말이 나오기 쉽지 않았는데 존댓말을 안한다고 야단을 맞고 나니 아버지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서먹해졌다.



신경숙 (음악교육, 98)
현) 이주대학교 평생교육원·문화센터 등 기타 강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은 내가 장성해서도,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이어졌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나는 아버지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며 그렇게 멀게 지냈던 것에 대해 너무나 큰 후회가 몰려왔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거의 하루를 울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아버지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아버지가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엄마를 처음 만나서 받은 인상은 어땠는지, 살면서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낳았을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왜 한 번도 그런 것을 물어볼 생각을 안 했을까...

6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어찌하여 한 번도 그런 것에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병세가 악화되면서 아버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내가 계속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도와드리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위로를 해드렸던가, 기쁘게 해드렸던가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못해 드린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아버지가 다행히도 병세가 호전되어 간간히 내가 상주 보호자로서 병원에서 아버지를 직접 간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병실에서의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다. 아버지는 알아듣기 힘든 말과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나와 대화를 하였는데, 처음 내 집 장만을 했을 때, 내가 이화여대 합격을 했을 때 행복했다고 하셨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설령 아버지가 오래 사신다해도 맑은 정신으로 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길지 않을 것 같다.

병원에서, 그것도 코로나로 면회도 안되는 상황에서 쓸쓸히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기로 했다. 어쩌면 퇴원하자마자 다시 응급실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정말 그게 현실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집으로 모시기로 한 것에 후회는 없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곁에서 병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동창회 임원

직위	성명	전공/졸업년도	직장
회장	양수화	음악교육/74	현)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이사장 겸 단장
부회장	차령아	교육행정/96	현) 웃음치료 전문가, 구연동화가회 운영위원, BBC가족 이사
부회장	손옥임	교육행정/96	전) 당서초등학교 교사
부회장	정재용	화학교육/94	전)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부회장	이순원	체육교육/86	전) 한국사회체육문화재단 이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 부회장
감사	고정숙	체육교육/83	현) 개웅중학교 교감
감사	김 정	미술교육/00	전) 전농중학교 교사
총무	유경희	사서교육/00	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과장
총무	이복경	역사교육/86	전) 정일학원 강사, 진성기숙학원 강사
재정부	서희경	사서교육/74	현) 예원KOREA 대표이사
재정부	이영숙	체육교육/83	전) 대구 효성여중 무용교사
문화부	신경숙	음악교육/98	현) 이주대학교평생교육원 · 문화센터 등 기타 강사
문화부	박수경	체육교육/97	현) (사)한국철보공예협회 이사장, (주)금하철보 대표이사, 금하철보 반조갤러리 관장
문화부	김정숙	체육교육/98	전) 불곡고등학교 교사
연구부	이선희	음악교육/79	전) 오류여자중학교 음악교사
회우부	정혜영	교육행정/95	전) 경기도 수성중학교 교장
회우부	양향자	국어교육/98	전) 목동초등학교 교사
회우부	이혜숙	교육행정/96	전) 송덕초등학교 교장
회우부	김연정	독일어교육/90	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간사	김예나	미술교육/02	전) 남양주 공업고등학교 교사
간사	김은숙	화학교육/83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무과장
간사	박명숙	음악교육/77	전)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간사	박미진	교육행정/02	전) 송정중학교 교사
간사	신중수	상업교육/73	전) 하나물산 대표
간사	양정은	생물교육/02	전) 당곡중학교 교사
간사	이명님	미술교육/71	현)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간사	이명자	유아교육/88	전) 국민대학교 강사
간사	이무순	교육행정/94	전) 경기도 하남 교육청
간사	이은정	과학교육/02	전) 화성중학교 교사
간사	정혜란	특수교육/03	전) 태봉초등학교 교사
간사	최인경	교육행정/06	전) 송라중학교 교사
간사	허경덕	교육행정/02	전) 오마중학교 교사

성명	전공/졸업년도	직장
노 용	미술교육/76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김숙년	교육행정/76	현) 작가, 요리연구가, 한국전통문화학회고문, 전) 교대원 동창회장
김정순	초등교육/90	전) 연신초등학교 교장
노봉옥	지리교육/84	전)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과 명예교수
박재옥	일반사회/75	전) 교대원 동창회장, 한양대학교 대학원원장,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
손경순	국어교육/85	전) 신화중학교 교장
신은숙	일반사회/74	현) 세계평화여성포럼 회장
이금정	교육행정/99	전) 개혁신학원 이사장
이윤희	음악교육/78	현) 음악학원 원장
이은주	음악교육/80	전)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출강
이정순	미술교육/70	현) 화가, 수필가, 전) 교대원 동창회장
이화섭	교육행정/78	전) 청소년교육원장
장선숙	교육행정/69	전) 교대원 동창회장
장의순	일반사회/78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현) 승의여대 교수
정광순	교육행정/72	전) 교대원 동창회장, 상계고등학교 교장
정영자	교육행정/78	전) 교대원 동창회장
주영숙	교육행정/69	전) 덕성여대 총장
최경희	교육행정/97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국식품공업 대표
최길자	가정교육/71	전) 동구학원 이사장
한행자	교육행정/75	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황정숙	교육행정/76	전) 서서울 생활과학고등학교 교장

소식환영



동창님들의 변경된 주소와 근황 및 원고를 『동창회보』에 게재하여 함께 소식을 나누고자 하오니 활동사항을 사진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제한없음(생활수필, 생활시구, 수필, 시, 기타)
- 매 수 : 200자 원고지 10장 내외
- 기 간 : 수시접수
- 보낼곳 : 교육대학원 동창회 사무실

Tel. 02-3277-2118-9 Fax. 02-3277-2841 / MOBILE: 010-9161-01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우)03760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ged ewha.ac.kr>

